



험난한 고용률 70%의 길과 고용의 '질'

2013.06.12 | 김병권_ 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최악의 저성장 국면인 점을 감안할 때 지극히 예외적인 일자리 창출의 호조(?) 현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지금의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일자리 개수가 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성장률에 비해 과도하게 일자리가 늘어서 문제라는 말이다. 문제는 늘어나는 일자리가 대부분 도소매 음식 숙박 등의 자영업이나 노동 여건이 매우 열악한 보건 복지 분야라는데 있다.

성장률 7%보다 고용률 70% 목표가 더 나은가?

먹고 살기가 어렵다. 사실 우리의 경제형편이 어렵게 된지는 꽤 오래되었다. 분기별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 우리 경제가 3% 밑을 맴돌기 시작한 것이 2011년 가을부터이니 전에 겪어보지 못한 체감적 불황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도 1.5%였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5.15 벤처 활성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되기 어려운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은 곧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지금은 1990년대 말 IT벤처 붐이 불던 시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박근혜 정부가 취임전과 달리 최근 '제 2의 한강의 기적' 이니, '경제 부흥'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다시 성장률에 집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 큰 흐름은 여전히 양적인 성장률 자체 보다는 내부의 '불평등 개선' 이니 '사회 안전망', '일자리 양과 질의 개선' 등이다. 경제 민주화와 보편 복지, 일자리가 대선 주요 의제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연히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가 내놓았던 '747 공약' 같은 성장률 목표를 내걸지는 않았다. 여기까지는 필연이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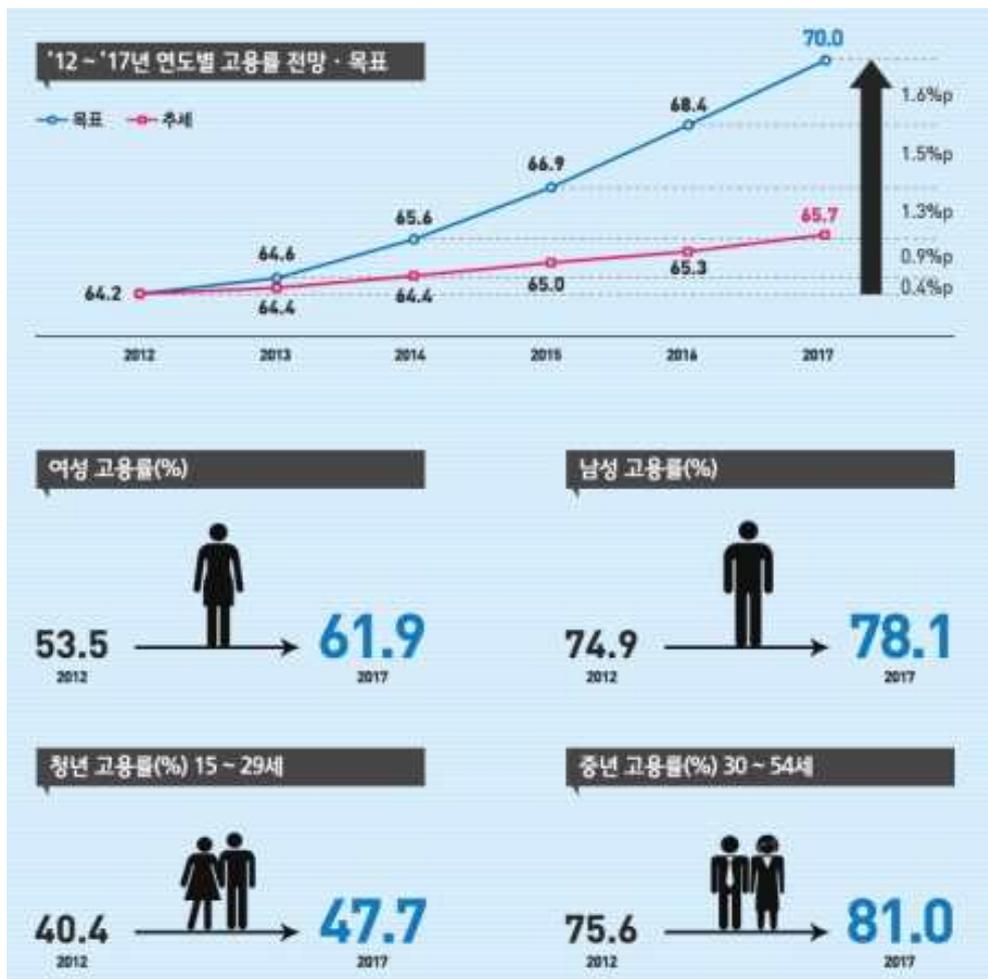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량적 목표를 내걸었던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고용률 70%다. 지난 6월 3일, ‘고용률 70% 로드맵’ 까지 발표하면서 실행의지를 구체화했다.¹⁾ 특히 시간제 일자리 확대 논란을 불러왔던 여성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 증대 목표가 눈에 띈다.([그림 1] 참조) 어쨌든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라고 부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외형적인 성장률에 집착하기 보다는 고용을 늘려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겠다.

[그림 1]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1% 올리기도 무거운 고용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몇 가지 짚어볼 것이 있다. 첫째는 현재의 고용률 64.2%(2012년 말 OECD기준)에서 집권 5년 동안 70%까지 무려 6%를 끌어올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OECD기준으로 고용률 정의는 15세~64세 인구 대비 취업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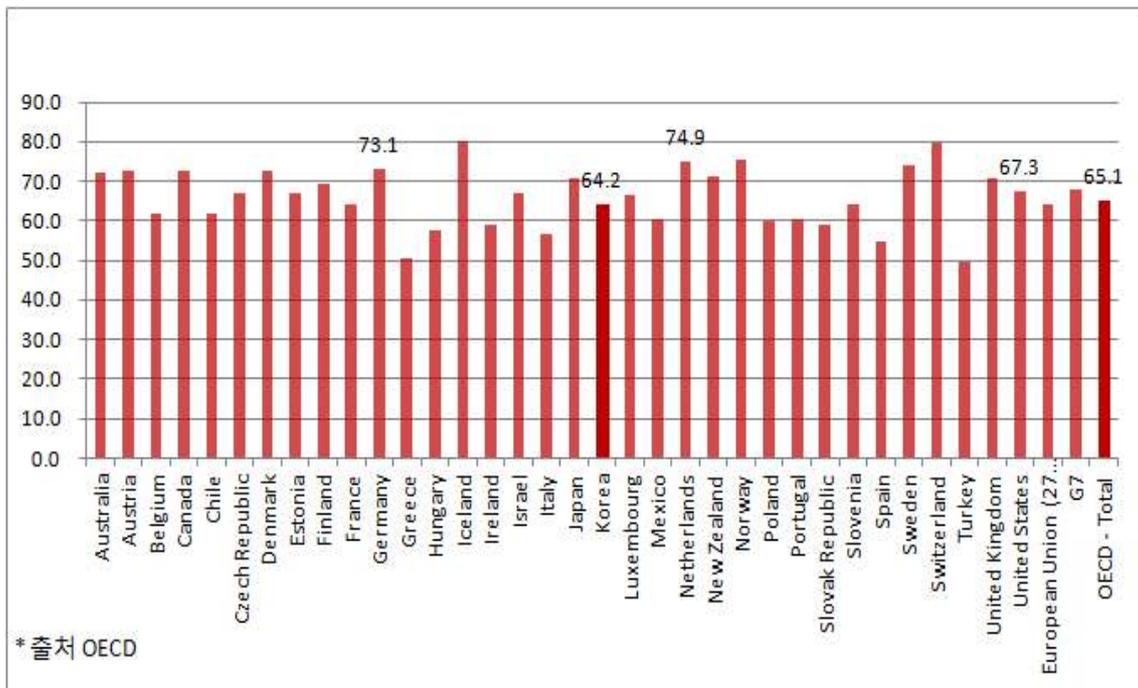


자 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의 출산률이 세계 최저라고 하지만 아직은 이들 인구가 매년 약 20만 명씩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률을 올리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도 매년 약 12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즉 매년 12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야만 늘어나는 생산가능 인구를 흡수하면서 고용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순수하게 고용률을 1% 끌어올리려면 약 36만개 이상의 추가적 일자리가 필요하다. 15세~64세 생산가능 인구가 약 3600만에 이르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일자리가 일시적면 소용이 없다. 고용률은 금방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36만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용률 1%는 결코 작은 수자가 아니다. 오히려 무거운 수치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1%도 무거운 고용률을 무려 6%나 올리겠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년 평균 47.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집권 기간 동안 총 238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4대 재벌인 삼성, 현대기아차, SK, LG의 총 임직원이 94만 명이고 그 중 국내인력이 56만 명가량 된다고 한다.²⁾ 238만개의 일자리는 이명박 정부 5년 실적의 두 배에 가깝고 4대 재벌이 해외에까지 고용하고 있는 인력 규모를 두 배 이상 넘어간다. 정부가 다시 외형적인 양적인 일자리 개수 70%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그림 2] 고용률(15~64세 기준)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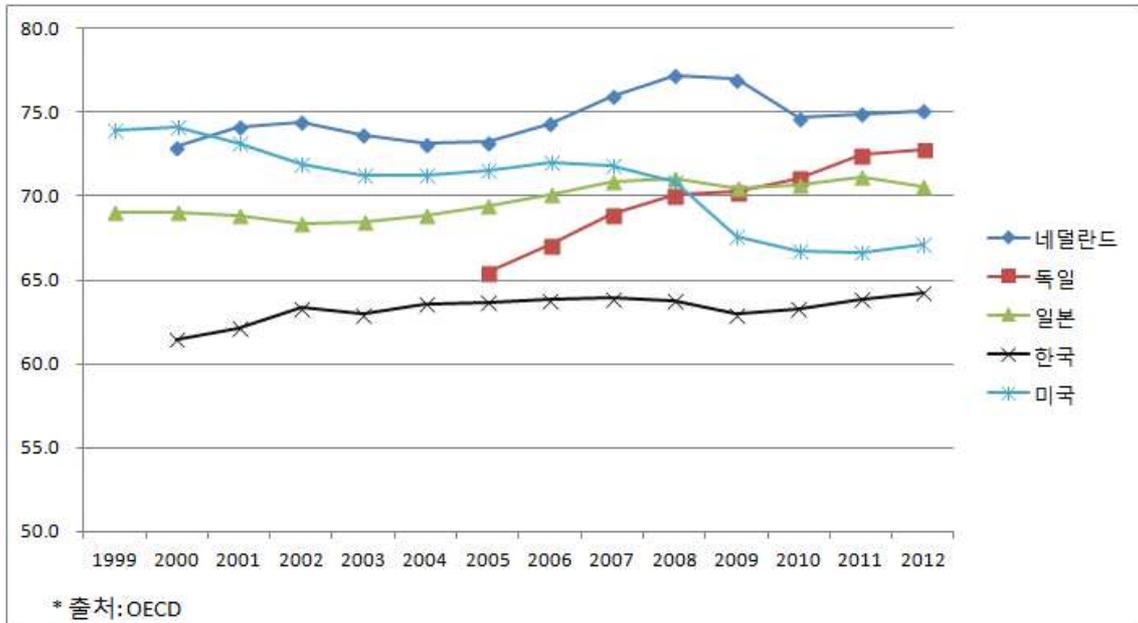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물론 우리나라 고용률 64.2%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2012년 말 기준 OECD 평균은 65.1%이고 미국은 67.3%이며 일본은 70.9%이다.([그림 2] 참조) 특히 여성 고용률 등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분명히 고용률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고용률은 앞서 언급한 대로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정권이 두 번 바뀌던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고용률은 겨우 0.9%올랐다. 같은 기간 100년 만의 대 침체를 만난 미국은 71.2%에서 67.1%로 5%정도 떨어졌다. 일본은 2.3%올랐고 네덜란드는 0.7%올랐다.([그림 3] 참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단 5년 만에 고용률을 무려 6%나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그랬으면 오죽 좋으련만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현실성이 크게 떨어져 보인다. 마치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 처럼.

[그림 3] 주요 국가들의 고용률(15~64세 기준) 변화 추이 비교



바닥 기는 성장률 비하면 지금도 일자리는 크게 늘고 있다.

두 번째로 짚어볼 대목이 있다. 최근 고용과 성장률이 따로 노는 현상을 주의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2% 저성장 국면은 2003년 카드대란 당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씩 줄어들었던 시기다. 통상 실질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가면 일자리가 늘지 않고, 2%이상 성장할 경우에도 1%성장률이 올라갈 때 대략 약 5만 개 정도씩 일자리가 늘었던 것이 지난 10년의 우리 경험이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과거와 명확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는 추락하는데 일자리는 거꾸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률이 6%가 넘었던 2010년에는 30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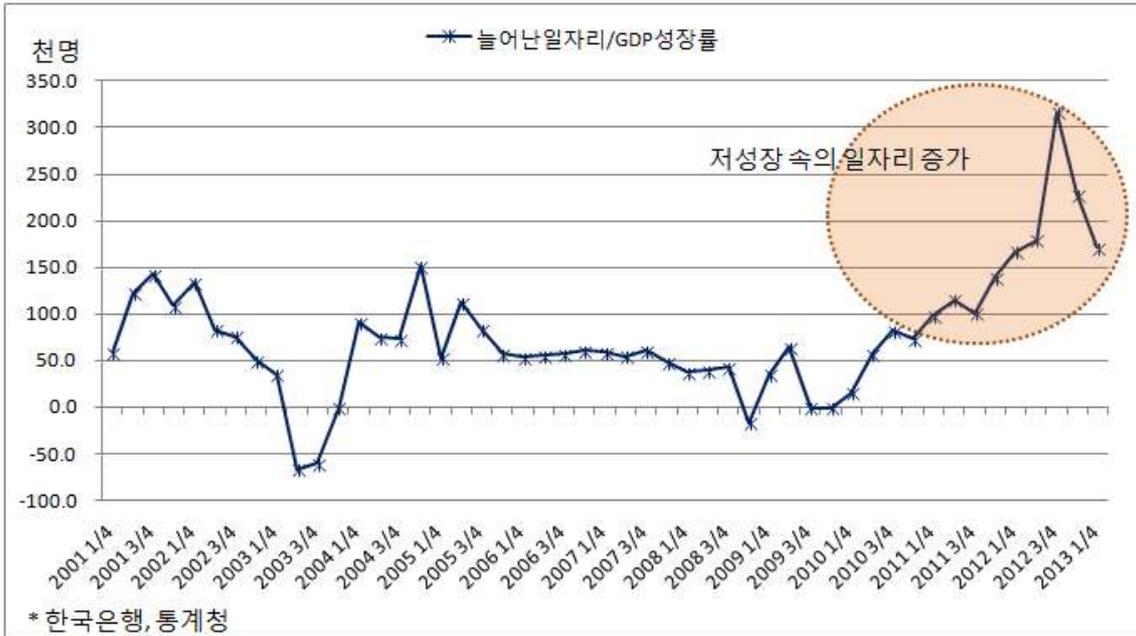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의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성장률이 1/3 토막 났던 2012년에는 오히려 43만개가 넘는 추가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소 누그러졌다지만 지금도 이런 추세는 계속 되고 있는 중이다.

[그림 4] 실질 경제 성장률 대비 일자리 증가(전년 동기 대비) 변동 추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은퇴세대의 노동시장 잔류가 장기화되는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일자리 증가와 경기 동향이 반대로 움직이는 지점이 제조업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서비스 부문 자영업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들은 실질 소득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참여의사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³⁾ 결국 이렇게 늘어난 일자리는 이슈를 고용문제에서 자영업 문제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유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보편복지 요구의 확산에 따라 보건 복지 서비스의 일자리가 매년 10만개이상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늘어난 일자리 순 증가 130여만 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70만개 일자리는 보건 복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도 알고 있다.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한 일자리 창출’ 등을 그럴 듯하게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목표로 하고 있는 전체 일자리 창출 238만개의 1/3에 해당하는 80만개 일자리가 보건 및 사회복지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문·과학기술분야에서 만들겠다는 일자리 33만 7천개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압도적인 수자다.⁴⁾ 앞에서 지목되었던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현재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팽창하고 있는 보건 복지 서비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분야의 일자리가 가장 질이 나쁜 일자리들이기 때문이다.

요약을 해보자. 지금과 같은 장기침체 국면에서 고용률은 1%올리는 것도 정책적 노력이 매우 많이 소요되며 심지어는 현재의 고용률을 지키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매년 1% 이상씩 올리면 물론 좋겠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적으로 그 정도 실적을 거둔 나라들이 없다. 외형적 실적 올리기에 치중하지 말고 고용률 1%의 무게를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최악의 저성장 국면인 점을 감안할 때 지극히 예외적인 일자리 창출의 호조(?) 현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지금의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일자리 개수가 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성장률에 비해 과도하게 일자리가 늘어서 문제라는 말이다. 문제는 늘어나는 일자리가 대부분 도소매 음식 숙박 등의 자영업이나 노동 여건이 매우 열악한 보건 복지 분야라는데 있다. 추가적인 일자리 늘리기에 앞서 이들 분야의 소득 여건과 노동여건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용문제에서 진짜 핵심은 일자리 개수가 아니라 '질' 인 것이다. 정부가 집중해야 할 대목도 여기다. 그 '질' 을 개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그런데 고용률 70%로드맵을 거창하게 발표하고 있는 지금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1) 2013년 6월 3일 고용부, 기재부를 포함 11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2) 머니투데이 2013년 6월 10일자
3) 박세준 외(2013.5), “경기-고용간 관계 변화의 구조적 요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BOK 이슈노트
4) 6월 3일 기재부 발표자료 8쪽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2013년 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3년 6월 12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이슈진단	2/7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김병권
이슈진단	2/15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김수현
이슈진단	2/22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나	최정은
이슈진단	3/9	스위스 국민투표, "경영자 보수를 제한하라"	김병권
이슈진단	3/11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속 가능할까?	여경훈
이슈진단	3/11	경제가 부진해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	김병권
이슈진단	3/13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3/18	주주총회 시즌에 생각해 보는 경제 민주화	김병권
이슈진단	3/23	유럽의 숨겨진 분단국가 키프로스의 비극	김병권
이슈진단	4/2	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최정은
이슈진단	4/3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김병권
이슈진단	4/11	한국 경제와 이스라엘 경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김병권
이슈진단	4/24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최정은
이슈진단	5/2	전 세계를 속인 엑셀 불황	여경훈
이슈진단	5/9	정년 연장법 통과 쟁점과 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6/7	메디텔, 멈추지 않는 의료민영화	이은경
이슈진단	6/12	험난한 고용률 70%의 길과 고용의 '질'	김병권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